

불길에 몸 던지는 간절함으로 살고 있는가?



청평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



스님은 “의상 스님도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도량을 더럽힐까봐 이 산에서 입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극락왕생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소리쳤고 일어 스님은 불 속에서 뛰쳐나왔다. 이미 일어 스님의 몸은 심하게 타버렸고 백인 스님은 인근 스님들에게 방조한 죄를 비난 받았다. 일어 스님은 “내가 극락왕생을 위해 스스로 한 일”이라며 입적했다. 1832년 1월, 일어 스님의 나이 26세 승랍 10년 때의 일이다.

소신공양에 대한 이야기는 <법화경> <금광명경> <열반경> <사분율> <대품반야경> <대보적경> <법망경> <대지도론> 등 여러 경전에도 실려져 있다. 부처님은 <금광명경> ‘사신품’에서 일곱 마리의 새끼들과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른 벌을 위해 몸을 바친 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법화경> ‘약왕

미다.

1998년 6월 27일(음력 5월 4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호명산 감로사 아래 숲에서 한 줄기 불길이 치솟았다. 태고종 승정 총담원상(神湛圓相) 스님이 30년 이상 발원해 오던 소신공양을 결행한 것이다. 주석하던 서울 왕십리 승가사에서 홀로 택시를 타고 찾아와 조용한 숲에 임종계를 남기고 육신을 불보살님께 공양했다. 소신공양을 위해 항상 노구(老龜)를 정갈하게 유지했던 총담 스님의 임종계는 이렇다.

호명산 감로사에 노닐던 이 노승은 본래 서원 성취코자 삼보전에 소신공양 올리나니 이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은혜를 값고 국태민안하여 불법이 거듭 흥통하기를 기원하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한 것이니 스님의 뜻이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성 스님은 총담 스님의 원력이 실현되도록 하는 불사(佛事)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신공양은 총담 스님 한 분이 하셨지만 그 원력을 성취시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불자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가? 몸을 불길에 던지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반드시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몸을 찾는 목마른 사람처럼, 일을 품은 닭처럼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참 불자가 아니겠는가?

“경전에서 말하는 소신공양의 공덕은 바로 철저한 자기 수행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대 선지식들의 소신공양 역시 생사를 관통하는 일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사자후였습시다.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지 못했다면 불보살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자과부지(自過不知).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아상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행동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남 탓만 하거든요. 자기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잘 살기 기본은 ‘자기관리’ 주변 돌아보는 눈 필요

보살본사품’에서는 일체중생회전보살이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써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하고 여러 가지 향을 먹고 향유를 마시고 바른 뒤 스스로 몸을 태우니 그 광명이 80여 향하의 모래 같은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고 찬탄하고 있다.

중국 당나라 때에는 생사를 여인 선사들이 소신을 연출함으로써 ‘생사일여’의 도리를 시현한 사례가 많다. 현대(玄奘) 선사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 앉아 “금년이 65세인데 4대(四大)가 주인을 떠나려 하네. 도는 본래부터 현묘하고 현묘하니 거기에는 부처도 조사도 없다. 머리로 깎지 말고 목욕도 시키지 말고 한 무더기 사나운 불길이면 천만 번 만족하리”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단정히 앉아 불속에서 입적했다. 경통(景通) 선사의 경우 스스로 장작을 준비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 위에 서서 불을 붙여 입적했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소신은 생명의 회생이요 마음의 환공이다. 상대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절대자상의 세계에서 빛을 투영하는 것이다. 내가 불이다. 내게 불이 붙었다. 내가 탄다. 내가 죽는다. 이러한 생각의 여지가 하나 없이 사라진 절대상태에서 나오는 심핵(心核)”이라고 정의했다.

소신공양은 철저한 수행을 통한 자기초월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기틀에서 발현되는 원력 또한 소아적이거나 상대적 목적에 경도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구원과 해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불길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일에는 역겹의 불보살이 동조(同調)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

총담 스님 ‘화중생연’ 도량 감로사 성역화에 매진

만약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묻거든 다 응당히 주하는 바 없게 하라.

그리고 12년이 지났다. 총담 스님의 화중생연 12주기 추모제가 봉행된 뒷날 감로사 주지 지성(智性, 66) 스님을 찾아갔다. 지성 스님은 총담 스님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 혈연(血緣)에 사제(師弟)의 인연을 더한 것이다.

“수행자의 마지막이 소신공양이어야 한다. 나는 중노릇 그만 두겠다.”

총담 스님이 소신공양을 올리기 전 해(1997년), <정토삼부경>을 편역하여 출판 단계에 있을 때 기자는 지성 스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 그때 지성 스님은 총담 스님 옆에서 “매일 지극하게 16관법을 닦으면서 소신공양의 원을 실천할 공리만 하신다”며 “나는 도저히 그 광경을 상상할 수도 없어 스님께 서 출타하시는 걸 감시(?)하고 있다”고 했었다. 순천 선암사 계곡에 물레 장작더미를 마련해 둔 것을 찾아내 없애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총담 스님은 12년 전에 송고한 원력을 실행했고 지성 스님은 그 높은 뜻을 기리는 일을 필생의 원력으로 상속받았다.

“스님의 소신공양은 어떤 이슈에 대한 상대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인류의 안녕, 한반도의 평화통일, 종단간의 화합, 승속의 화합 등을 발원하며 위법망구하신 겁니다. 그 원력은 아직도

런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과 공조되는 자신의 삶을 열어 가야 합니다. 항상 지극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방식으로만 살아가려 하니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하는 겁니다.”

지성 스님은 ‘잘 사는 기본’은 자기관리임을 강조했다. 특히 불자라면 불자의 길을 가야하는데 입으로만 불자이고 행동으로는 비불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한 예로 생일불공을 들었다.

“부처님 생신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찬탄하는데 왜 자기 생일은 여범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생신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부처의 성품을 갖춘 당당한 ‘예비부처’인데 스스로의 생일을 불자답게 기리지 않습니다. 불자답게 생일을 지내는 길은 바로 생일불공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성 스님이 말하는 생일불공이란, 자신의 존재를 관조하는 진지한 의례다. 불공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온 뜻’을 되새기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갖 악행에 대한 참회가 따를 것이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발원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가족의 화목과 진지한 불자로서의 생활 규범을 지키는 에너지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정월이나 칠석 불공을 지극하게 올렸어요. 그게 구복이고 기복이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불공은 타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

화중생연(火中生蓮). 불속에서 연꽃을 피우다. 소신(燒身)공양을 화중생연이라 한다. 소신은 사신(捨身) 유신(遺身) 망신(亡身)이라고도 하는데 몸을 버린다는 의미다. 그러나 몸을 버리는 방법에 있어 인간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 소신이다. 하찮은 화상만 입어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인데 온 몸을 불태우며 죽음을 맞는 것은 지극한 원력과 수행이 바탕 되어야 가능하다. 율분이나 향거의 표시로 혹은 생을 비판하고 미움을 사하지 못해 자행하는 분신(焚身)과는 다르다.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은 중국에서 이어져 온 소신공양의 일면을 그렸다. ‘등신불’은 어머니의 죄를 씻고자 하는 한 수행자의 간절함 원력이 소신공양으로 실현되는 이야기다. 범해각안(1820~1896) 선사가 쓴 <동사열전>에 전하는 일어(1807~1832) 스님의 이야기는 수행의 완성을 통해 극락왕생하고자 하

는 구도자의 간절함 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일어 스님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16세에 두륜산으로 출가해 먹물 옷을 입었다. 19세에 당대의 대강백인 화담(華潭) 스님으로부터 <능엄경> <기신론> 등을 배웠다. 도반인 백인(白印) 스님과 함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법을 물다 25세에 금강산 만화암에서 정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일어 스님은 목숨을 걸고 서원했다.

“이 관음봉에서 100일기도를 올리겠다. 100일이 되기 전에 불 꺼진 찬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기도를 마치겠지만 100일이 되어도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으면 나의 육신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그러나 100일이 지나도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일어 스님은 절 앞마당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올라 불을 붙였다. 백인 스님이 말했으나 듣지 않았다. 백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연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사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